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WSJ: 인플레이 둔화... 미국인 여전히 물가에 불만
- Bloomberg: 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허리케인 전 수준으로 하락
- TheEconomist: 위협받는 미국 대기업들의 수익

[미국 금융]

- WSJ: 달러 하락세... 선거 임박과 연준 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 때문

[미국 생활]

- WSJ: 미 M.B.A. 프로그램 지원 급증

[주택]

- Reuters: 미 신규 주택 판매, 거의 1년 반 만에 최고치 기록

[오일]

- WSJ: 중동 리스크로 인한 유가 상승

[글로벌 경제]

- Bloomberg: 중국 정부, 자동차 회사들에 유럽 확장 중단 요청
- CNBC: IMF 부총재 “미국과 중국 관세 인상은 모두에게 힘들 것”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YahooFinance: 테슬라 주가 급등, 3분기 실적 좋았다
- WSJ: 구찌, 수익에 빨간 불
- NYT: 보잉, 새로운 합의안 거부하고 파업 연장
- CNBC: 아마존, 빠른 오프라인 배송 서비스 중단
- Bloomberg: 아메리카 항공, 수익 전망 상향 조정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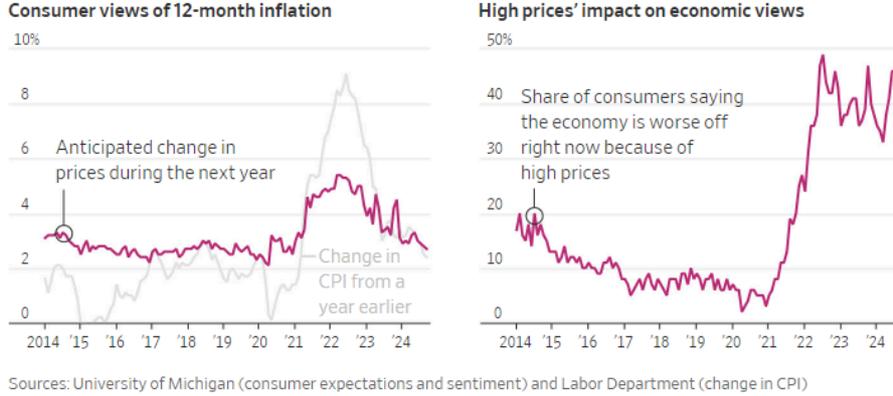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미국 경제]

WSJ: Inflation Has Cooled, but Americans Are Still Seething Over Prices 인플레이 둔화... 미국인 여전히 물가에 불만

- 인플레이가 둔화되고 있다. 미국인들의 고용 상태도 좋고 소비 지출도 양호한 상황이다.
- 그러나 많은 미국인들은 물가가 팬데믹 전과 같지 않고 여전히 40년 만에 최고치인 것에 불만을 갖고 있다. 물가 상승이 크게 둔화됐지만 물가 수준은 떨어지지 않고 있다.
- 특히 비용이 많이 드는 주택, 자동차, 자녀 양육, 보험료 등은 때때로 여전히 상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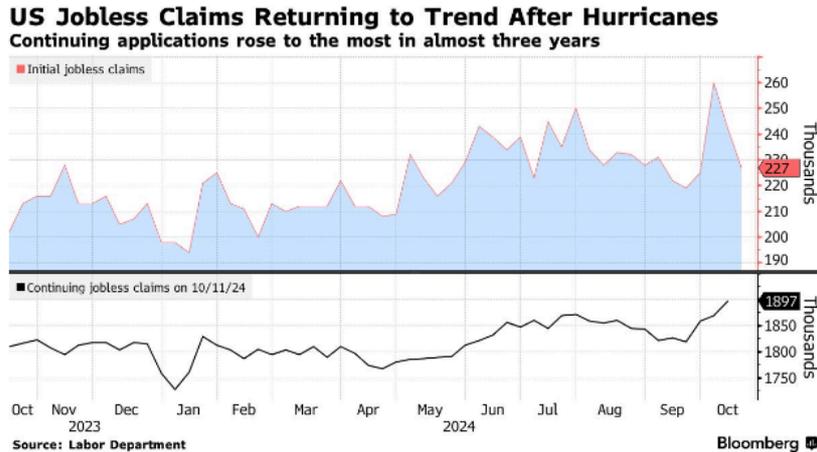
- 어제 수요일 연준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더 가격이 낮은 품목으로 소비 습관을 바꾸고 있다는 신호를 보이고 있다.
- 또 일부 직원들은 높은 물가로 인해 그들의 임금 가치가 감소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WSJ 기사

Bloomberg: US Initial Jobless Claims Fall Back to Pre-Hurricanes Levels
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허리케인 전 수준으로 하락

- 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주 연속 하락해 허리케인 Helene 과 Milton 발생 이전 수준으로 하락했다.
- 10월 19일 끝나는 주에 15만건이 감소해 22만7천건을 기록했다.
- 계속 실업수당 청구를 받는 총 숫자는 전주에 거의 190만건까지 증가했다고 연방 노동부는 오늘 목요일 발표했다.



Bloomberg 기사

TheEconomist: America's profit machine is under threat
위협받는 미국 대기업들의 수익

- 최근 미국 기업의 실적 발표가 좋았다. S&P 500지수에 포함된 미국 대기업들의 이익이 분기마다 꾸준히 증가해 작년 대비 4%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 투자자들은 S&P 500지수를 올해 23% 올렸다. 1997년 이후 가장 강력한 실적이다. 현재 주식 가격은 22배의 미래 이익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 특히 AI 같은 기술 대기업들의 이익이 급증했다. 엔비디아를 포함한 7개의 유명 기술 기업은 올해 S&P 500의 전체 이익 성장의 62%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소규모 상장 기업의 러셀 2000지수도 오랜 기간 평균 가격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소비자 지출에 대한 우려도 사라지고 있다. 9월 전국 소매 판매 수치는 세 번 연속 상승했다.
- 낙관적인 투자자들과 달리 CEO들은 신중하다. JP모건의 CEO Jamie Dimmon은 지정학적 위기와 급증하는 정부 부채가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
- 연준의 연구원 Michael Smolyansky는 지난해 논문에서 1989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 수익 성장은 금리와 법인세율 하락 덕분이라고 밝혔다. 기업의 수익 전망은 중앙은행과 정치인들의 결정에 달려 있다.
- 미국 대기업들의 호황은 곧 끝난다. 연준이 기준 금리를 인하하고 있지만, 과거 10년간의 초저금리로 돌아가진 않을 것이다. 미국 기업들은 2027년 말 만기인 저금리 고정 쿠폰 채권으로 2.5조 달러를 빚지고 있다. 즉, 재용자 비용이 급증할 것이다.
- 미국 대선 결과도 이익 성장을 늦출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승리 가능성이 커졌는데, 그의 고관세 공약은 미국 시장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다. 카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도 법인세율을 28%로 인상하는 등 기업의 이익에는 방해되는 공약을 내놓고 있다.



CHART: THE ECONOM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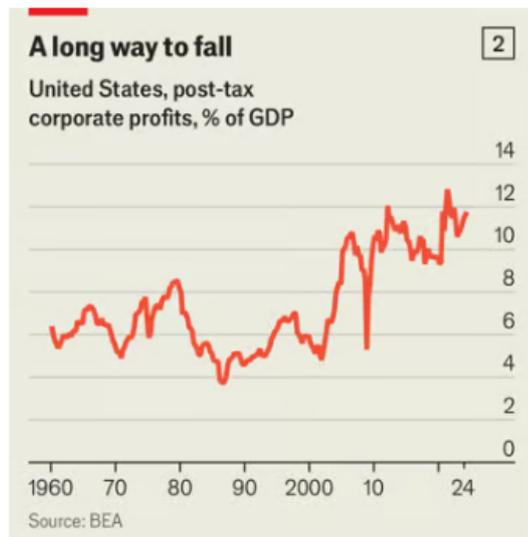


CHART: THE ECONOMIST

TheEconomist 기사

[미국 금융]

WSJ: Dollar Eases as Fed Rate Cut Looks More Likely, Election Looms 달러 하락세... 선거 임박과 연준 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 때문

- 달러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연준이 11월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커지고, 동결 가능성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미국의 머니마켓에 따르면 11월 금리 동결 가능성은 5%다. 지난번 12% 예측에서 크게 줄어든 수치라고 LSEG Refinitiv data는 밝혔다.
- 동시에 여론조사에 따르면 11월 대선은 매우 박빙이다. 분명한 선거 결과 예측이 없는 상황이 심리와 경제 성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잠재적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XTB의 Kathleen Brooks는 진단했다.
- DXY 달러 인덱스는 0.3% 하락한 104.151을 기록했다.

WSJ 기사

[미국 생활]

WSJ: Applications to M.B.A. Programs Soar 미 M.B.A. 프로그램 지원 급증

- 화이트칼라 직업 시장의 지속적인 침체에 좌절한 근로자들이 비즈니스 스쿨에 지원하고 있다. 대학원 경영 입학 위원회(GMAC, Graduate Management Admission Council)는 M.B.A. 프로그램(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학 석사 과정) 지원이 2024년 12% 증가했다고 밝혔다.
- M.B.A. 프로그램이 다시 유행하는 이유는 최근 대학 졸업생들이 제한된 직업 전망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이 화이트칼라 직업을 재편성하기 시작했으며, 경력직 직원들이 떠나지 않아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 현재 미국 노동 시장은 강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지난 2년간 노동 시장의 성장을 이끈 것은 소매, 외식 산업, 의료 및 정부의 저임금 직종이다.
- 2022년 기술 근로자들로 시작된 화이트칼라 직업 시장의 침체는 다른 산업으로 확산되고 있다. 골드만삭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들은 올해 수만 명의 직원을 해고했다.
- GMAC의 CEO Joy Jones는 “파트타임이나 온라인 비즈니스 스쿨처럼 유연성이 큰 M.B.A.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여성의 지원도 작년보다 10%포인트 증가했다. 경제 환경이 혼란스러울 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기술 역량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WSJ 기사

[주택]

Reuters: US new home sales highest in nearly 1-1/2 years in September

미 신규 주택 판매, 거의 1년 반 만에 최고치 기록

- 올해 9월에 미 신규 단독주택 판매 건수가 1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모기지율이 줄어들자 구매자들이 이를 활용한 데 따른 것이다.
- 신규 주택 판매는 지난달 계절 조정을 거쳐 연율 73만 8천 채로 4.1% 상승했다. 지난 2023년 5월 이래 최고치라고 연방 통계국이 오늘 목요일 밝혔다. 작년 동월과 비교해서는 6.3% 증가했다.
- 상대적으로 지난 8월 판매 건수는 당초 발표된 71만6천채에서 70만9천채로 하향 조정됐었다.
- 한편 모기지율은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 후에 1년 반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Reuters 기사

[오일]

WSJ: Oil Rebounds on Middle East Risks

중동 리스크로 인한 유가 상승

- 유럽의 초반 거래에서 유가가 1.5% 이상 상승했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76.16달러로 1.6% 상승했다.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는 배럴당 72.01달러로 1.8% 상승했다.
- ING의 Warren Patterson과 Ewa Manthey는 시장이 중동의 공급 리스크와 수요 약세의 우려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 아직 석유 공급에 차질이 생길 정도는 아니지만,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와 이란에 어떻게 대응할지 아직 불확실하다.
- 중국의 약한 수요와 OPEC+의 생산 증가 전망 덕분에 중동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추가로 상승하진 않고 있다.

WSJ 기사

[글로벌 경제]

Bloomberg: China Asks Carmakers to Halt Europe Expansion Over Tariff

Spat

중국 정부, 자동차 회사들에 유럽 확장 중단 요청

- 중국 정부가 자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에게 유럽연합으로의 수출 확장을 중단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 유럽의 전기차 관세 부과 등 무역 갈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 중국 국영 기업인 Dongfeng Motor Group은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한 반응으로 이탈리아에서 자동차를 생산할 계획을 중단했다.

- 유럽연합은 이달 초에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4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중국이 자동차 회사들에게 부당한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는 이유였다.

Bloomberg 기사

CNBC: U.S., China trade tariffs escalating would be 'costly for everybody,' IMF deputy director says **IMF 부총재 “미국과 중국 관세 인상은 모두에게 힘들 것”**

- IMF 부총재 Gita Gopinath가 미국과 중국이 관세를 올리고 무역 갈등이 고조되면 전 세계가 큰 비용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미국과 EU는 일부 중국산 제품에 대해 불공정 무역 관행이라 주장하며 높은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도 맞대응하면서 일부 EU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했다.
- Gopinath는 “글로벌 생산량이 예상보다 낮을 수 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다. 무역 갈등과 보복 관세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제금융연구소(Institute of International Finance) CEO Tim Adams도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관세 공약은 금리를 상승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 IMF는 최근 보고서에서 보호주의 정책이 늘어나면 글로벌 경제 성장이 하락세에 들어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호주의 정책이 글로벌 무역 긴장을 악화시키고 글로벌 공급망을 혼잡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CNBC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YahooFinance: Tesla stock soars after investors cheer Q3 earnings details

테슬라 주가 급등, 3분기 실적 좋았다

- 오늘 목요일, 테슬라 주가가 급등했다. 어제 수요일, 테슬라가 발표한 3분기 실적이 좋았기 때문이다. 장 초반에 주가가 14% 상승했으며, 회사의 시장 가치에 수백억 달러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 테슬라는 251억8천만 달러 매출을 보고했다. 2분기의 250억5천만 달러보다 높고, 작년 234억 달러보다 높은 수치다. 조정 순이익은 25억 달러, 잉여 현금 흐름(free cash flow)은 29억 달러, 조정 주당 순이익은 0.72달러를 기록했다. 매출 총이익률은 19.8%로, 예상치인 16.8%보다 훨씬 높았다.
- 테슬라는 3분기에 전 분기보다 6.4% 많은 46만2천8백90대의 차량을 판매했다. 작년 3분기 43만5천59대보다도 많다. 테슬라는 “모델3 신차 출시 성공적이었다. 총생산량은 증가하고 매출원가율은 낮아졌다. 사이버트럭도 생산량이 증가해 처음으로 이익을 남겼다.”라고 밝혔다.

WSJ: Gucci Has Problems. The Biggest May Be a Safe New Look

구찌, 수익에 빨간 불

- 구찌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구찌 소유주인 프랑스 럭셔리 그룹 Kering은 수요일 3분기 실적 공개에서 올해 세 번째 수익 경고를 발표했다. 2024년 영업이익이 작년의 절반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출은 작년 3분기에 비해 25% 감소했다.
- 중국 소비자의 구찌 소비는 이번 분기 35% 감소했다. 중국의 부동산 위기와 경제 성장 약화 때문이다. 미국과 유럽의 3분기 구찌 매출도 20% 감소했다. 경제 문제로 고객들이 지갑 열기를 주저하면서 구찌와 버버리 같은 약세 브랜드가 타격을 입고 있다.
- 구찌는 1년 반 전 새로운 디자인 팀을 만들었다. 럭셔리 브랜드가 모멘텀을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아직은 수익의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초기 단계로 볼 수 있다. 40% 하락했던 Kering의 주가는 2017년 초 수준까지 회복됐다. 곧 구찌에 현금이 다시 유입될 것이다.

Quarterly sales, change from a year earlier



Source: the companies

WSJ 기사

NYT: Boeing Workers Resoundingly Reject New Contract and Extend Strike

보잉, 새로운 합의안 거부하고 파업 연장

- 보잉 노조 측이 회사 측의 새로운 합의안을 거부하고 파업을 연장했다. 투표 참여자 64%가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의안에는 4년간 임금 40% 인상, 7천 달러의 일회성 보너스, 퇴직금 추가 적립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보잉은 파업이 연장되기 몇 시간 전에 61억 달러의 손실을 발표했었다.

- 보잉 기계공의 평균 연봉은 약 7만5천 달러이다. 보잉에 따르면 10년 동안 8%의 임금 인상과 시간당 4달러 이상의 추가 생활비 조정이 있었다. 연방 데이터에 따르면 시애틀 지역의 소비자 물가는 10년 동안 40% 이상 상승했다.
- 몇몇 사람들은 노조가 임금, 퇴직, 건강 보험 및 기타 혜택에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반대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 파업이 연장된 것은 보잉뿐만 아니라 여러 공급업체에게도 나쁜 소식이다. 737 맥스의 기체를 공급하는 Spirit AeroSystems는 다음 주부터 700명의 직원이 무급휴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YT 기사

CNBC: Amazon to shut down speedy brick-and-mortar delivery service 아마존, 빠른 오프라인 배송 서비스 중단

- 아마존이 쇼핑몰 및 오프라인 소매업체 당일 배송 서비스를 12월 2일까지 중단한다고 밝혔다. 담당 직원 중 일부는 퇴직금과 함께 해고되고, 나머지는 다른 직책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 이번 서비스 중단은 아마존의 비용 절감 노력의 일환이다. 2022년부터 아마존의 CEO Andy Jassy는 비용 절감을 진행 중이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2만7천개 이상의 일자리를 줄였다. 원격 의료 서비스, 어린이용 화상 통화 장치 등 검증되지 않고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을 엄격하게 취소했다.
- 아마존은 기존의 서비스를 이용하던 여러 소매업체들이 원활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계속해서 빠른 배송에 우선순위를 두고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다.

CNBC 기사

Bloomberg: American Air Lifts Profit Outlook on Gains From Sales Pivot 아메리카 항공, 수익 전망 상향 조정

- 아메리카 항공이 연간 수익 전망을 상향 조정했다.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주당 1.60달러의 조정 순이익을 예상한다고 밝혔다. 블룸버그 예상치 평균인 1.23달러보다 높은 수치다.
- 아메리카 항공이 7월에 올해 두 번째로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것에 비해 급격한 반전이 있었다. 잘못된 전략은 포기하고 수익성 있는 기업 비즈니스를 회복했다는 뜻이다.
- 아메리카 항공은 판매 및 유통 전략 개선을 위해 공격적인 조치를 취해 대부분의 주요 여행사와 기업 고객과 재협상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잃어버린 고객들을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하지만 아메리카 항공은 여전히 높은 비용 문제 직면해 있다. 여행 수요와 요금을 나타내는 지표인 단위 수익도 이번 분기 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Bloomberg 기사

[보고서]

美 9월 들어 경제활동 둔화 지역 없어...힘 실리는 '노(NO)랜딩' 연준 경제동향보고서 "대부분 지역 경제활동 불변...2곳은 완만한 성장"

미국 경제가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면서 동시에 성장세를 이어가는 '노랜딩'(무착륙) 전망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지난달 들어 미국 내 대부분 지역에서 경제활동 둔화세가 감지되지 않았다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진단이 나왔다.

연준은 23일(현지시간) 발표한 10월 경기동향 보고서(베이지북)에서 미국 내 12개 지역 연방준비은행(연은) 담당 지역 중 대부분 지역에서 9월 한 달간 경제활동에 변동이 없었고, 2개 지역에선 다소 완만(modest)한 성장세가 보고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조사 기간 고용이 전반적으로 소폭(slightly) 증가했으며, 과반의 지역에서 고용이 소폭(slight) 내지 다소 완만(modest)하게 증가했다고 진단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